

# 이슬람을 경계하라



**이만석** (한국이란인교회 담임, 무슬림선교훈련원장)

예장통합 총회 파송 이란 선교사, 한국이란인 교회 담임, 무슬림선교훈련원장, 한국장로교총연합회 이슬람연구원장 한국기독교연합 이슬람대책연구원장 예장통합총회 이슬람대책위 전문위원 서울 장신대학교 졸업 서울장로회신학 대학 졸업 아세아연합신학대학원 졸업(MA, ThM) Grace Theological Seminary 졸업(D.Miss) 무함마드의 계시는 왜 지구 바깥까 외 이슬람 저서 다수

## 들어가는 말

세계는 이슬람과의 전쟁 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화롭고 풍요했던 유럽, 첨단과학과 예술이 어우러지는 지상 낙원처럼 전망의 대상이었던 그 땅이 이슬람 때문에 매일 테러의 공포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스컴은 이슬람을 부정적으로 표현하는 사람을 인종차별주의자(Racist) 혹은 이슬람포비아(이슬람 공포증)환자로 부르며 별떼처럼 공격하여 사회에서 매장시키려고 한다. 더구나 유럽 본토인들의 인구는 급히 줄어들고 있는데 반하여 유럽 내의 이슬람 인구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유럽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이슬람이 인구로 유럽 땅을 점령하는 것은 시간문제이다. 이미 영국의 수도 런던은 무슬림 시장이 당선되었으며 각국의 무슬림들은 장관 혹은 국회의원 등 요직을 점령

해 가고 있다. 만일 이슬람이 평화를 지향하는 좋은 시스템이라면 무슨 걱정이 있겠는가? 이제 우리도 더 늦기 전에 이슬람의 정체를 알아야 할 때가 되었다.

## 이슬람과 무슬림

이슬람은 종교가 아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법률, 교육, 군사, 외교, 철학 등 모든 것을 총망라한 시스템이며 이데올로기이다. 그러므로 인간 삶의 모든 면을 샤리아(이슬람율법)를 기준으로 허락된 것(할랄)과 금지된 것(하람)으로 나누어 간섭하고 통제한다. 실제로 무슬림들은 그 족쇄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치지만 너무 강력한 처벌이 두려워 체념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슬람의 정체를 분명히 밝혀줘야 하지만 그들에게 직접적 피해를 보고 있는 무슬

림들은 절대로 미워하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사랑과 섬김으로 그들을 붙잡히 여기고 그 눈을 뜨게 해서 자신들이 악한 체제에 속고 있음을 알리고 그들도 인간다운 자유와 권리를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이다.

### 이슬람의 배타성

이슬람은 배타적이다. 어떤 이들은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고 주장하지만 평화(salam)와 이슬람(Islam)은 어원이 다르다. 이슬람이라는 단어는 복종이라는 의미이며 묻지도 말고 의심하지도 말고 생각하지도 말고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슬람을 “묻지 마” 종교라고 한다.(꾸란5:101) 무슬림은 “복종하는 자” 즉 이슬람의 율법(샤리아)에 복종하는 사람을 말한다. 이슬람의 경전 꾸란에 보면 무슬림들은 절대로 비무슬림을 친구로 사귀지 말아야 한다. 기독교, 유대교인들을 친구로 삼지 말라고 명하고 있으며(꾸란5:51), 비무슬림들을 친구로 삼는 것은 자신이 알라의 적이라는 것을 명백히 증명하는 행위라고 말한다.(꾸란4:144) 그리고 타종교인들과 결혼을 금하고 있으며, 무슬림 남자와 기독교나 유대교를 믿는 여자들과의 결혼은 허용(할랄)되나 무슬림 여자가 기독교, 유대교 또는 그 외의 종교를 믿는 남자와는 결혼이 금지(하람)된다. 무슬림 부부 중 한 쪽이 다른 종교로 개종하면 그 결혼은 자동으로 무효가 된다. 기독교인 가정에서 태어날 때부터 기독교인이었으나 아버지나 어머니 중 한 사람이 이슬람으로 개종하거나 잠시라도 이슬람으로 개종한 적이 있다면 자녀들은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영구히 무슬림으로 호적이 바뀐다.(이만석/BH Eldin, 중동 이슬람 사회의 실상(4HIM, 서울, 2017), pp.157-8) 이는 이슬

람으로 개종은 할랄(허용)이나 이슬람에서 타종교로의 개종은 하람(금지)이기 때문이다. 그들은 비무슬림들은 가장 사악한 짐승들이라고 가르치고 있으며(꾸란8:55) 타종교를 권하는 자도 죽여야 하고(꾸란4:89) 타종교인들과 평화롭게 공존하기를 원하는 자들도 위선자들로 정죄하고 죽이라고 명한다.(꾸란4:91)

### 이슬람의 폭력성

모든 무슬림들이 테러범은 아니지만 대부분의 테러범은 무슬림이라는 것은 아무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왜 순진한 무슬림이 갑자기 테러범이 되는 것일까? 꾸란에는 “종교는 강제로 하지 말지니라”(꾸란2:256)처럼 평화적 구절도 있으나 이는 후에 “이교도를 어디서 만나든지 살해하라”(꾸란9:5)는 구절에 의

해서 취소된다. 꾸란의 두 구절이 서로 모순이 될 때 나중 계시에 의해서 이전 계시는 자동 취소(Mansukh)되고 대체(Naskh)된다는 교리가 있기 때문에 이슬람을 깊이 알게 되면 이교도들과의 전쟁(Jihad)은 무슬림들의 의무(꾸란2:216)이며 알라와 무함마드를 위해서 목숨과 재산을 바쳐 싸우는 자들만이 진정한 무슬림(꾸란49:15)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이슬람의 세계관은 평화의 집(Dar al Salam)과 전쟁의 집(Dar al Harb)으로 나뉜다. 무슬림들은 평화의 집에 살고 이슬람 외의 모든 종교 즉 기독교, 유대교, 불교, 힌두교, 무신론 ... 등 추종자들은 전쟁의 집에 산다는 것이 이슬람의 세계관이다. 따라서 이슬람의 윤리관은 전쟁 윤리를 따른다. 평시에 사람을 죽이면 범죄지만 전시에 적군을 죽이는 것은 많이 죽일수록 영웅 대우를 받는다. 그래서 뉴

육에서 9/11 테러를 성공시켜 하루에 3,000명을 죽인 오사마 빈라덴 같은 사람을 이슬람권에서는 영웅으로 존경한다. 무슬림들은 아내를 구타하는 것을 남편의 권리로 알고 있으며(꾸란4:34) 부모나 형제가 타종교로 배교한 가족을 죽이는 것을 명예로 알고 있다. 옥스포드 대학의 학술회원이며 이슬람 관련 책을 120권이나 저술한 유명한 학자 유스프 알 가라다위(Yusuf Al Qaradawi)가 “만일 배교자를 죽이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이슬람은 오래 전에 사라졌을 것이다”고 말하는 것이 유튜브 동영상 사이트에 올라와 있다. 아랍권에서 흔히 듣는 이야기가 있다. 불신자들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할랄(허락된 것)이다. (무슬림들에 대한) 박해는 (불신자들) 죽이는 것보다 더 큰 죄악이다.(꾸란2:217, 꾸란2:191) 소위 이슬람 성직자들이나 이슬람 학자들로부터 이런 꾸란 구절을 실천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듣는다면 불신자들의 생명을 경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해야 한다는 말이 연약한 자들의 변명으로 들릴 것이다.

물론 모든 무슬림들이 이런 구절을 실천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슬람을 떠나지 않는 한 그들의 행위를 비난할 수는 없다. 잔인한 테러는 규탄하면서도 어떤 무슬림도 그 테러의 원인을 제공하는 꾸란 구절이나 이슬람의 가르침을 규탄하지는 못하며 테러와 이슬람의 관련성도 부인한다.

### 거짓을 허용하는 이슬람

이슬람에서는 거짓말을 허용하는 타끼야(Ta-qiya)라는 교리가 있다. 알라, 이슬람, 꾸란, 무함마드, 이슬람 공동체의 유익 ... 등을 위해서 하는 거짓말은 허용(할랄)된다. 그래서 이슬람 학자들은 TV나 방송 혹은 책자를 통해서 얼마든지 거짓말로 이

슬람을 미화시킨다.(꾸란2:225, 꾸란16:106...) 심지어는 이슬람의 경전 꾸란을 번역할 때도 말도 안 되는 거짓으로 미화시켜 번역한다. 이것을 타끼야 번역이라고 한다. 이혼은 두 번까지 허용된다는 꾸란 2:229절을 명지대학교 최영길 박사는 “화해를 통한 두 번까지의 이혼은 허용된다”고 번역했는데 꾸란 아랍어 원문에는 “화해를 통한”이라는 말은 없다. 꾸란 4:142은 “위선자들은 알라를 속이려하나 알라는 그들을 속이신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최영길 번역은 “실로 위선자들은 알라를 속이려하나 알라는 그들을 먼저 아시니라”라고 번역했고 이슬람국제출판국에서 나온 번역본은 “위선자들이 알라를 속이고자 하나, 알라께서는 그들의 거짓으로 그들을 벌하실 것이니라.”라고 번역했다. 아랍어 원문에는 후와 카디우훴(Hwa khadiuhum:그분께서 그들을 속이신다)라고 되어 있다. 경전도 이렇게 마음대로 거짓으로 미화시키는 사람들이 무슨 거짓말인들 못하겠는가? 심각한 것은 이들이 무식한 광신자들이 아니라 소위 학자요 박사요 대학교수라는 사실이다. 그래서 이슬람은 평화의 종교라든지, 이슬람에서는 여성들의 인권을 높이 존중한다든지 이슬람은 폭력이나 테러와 관련이 없다든지 또는 모든 무슬림들은 할랄음식만 먹는 다거나 할랄 음식은 위생적이라는 등의 그들의 말이 거짓말임을 분별해야 속지 않을 수 있다.

### 이슬람의 여성비하

이슬람은 여성들의 인권을 남성의 절반만 인정한다. 상속도 딸은 이들의 절반만 받아야 하고(꾸란4:11) 법정에서 한 남성의 증언은 여성 두 명의 증언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꾸란2:282). 이슬람 제2의 경전 하디스(Hadith)에 의하면 “메카



방향으로 기도할 때 그 앞으로 개나 당나귀나 여자가 지나가면 그 기도는 무효다”(Sahih Bukhari Volume 1, Book 9, Hadith No. 490). 남편이 자기 아내를 때리는 것은 할랄(허용된 것)이다(꾸란 4:34). 여자가 통치하는 나라는 성공하지 못한다(부카리 하디스). 잠자리를 거절하는 여인은 때려도 된다. 외출할 때는 베일을 써서 간음을 피하라. 즉, 베일을 쓰지 않은 여자는 간음해도 된다(꾸란 33:59). 아내에게 탈락(Talaq:이혼)이라고 구두로 3회 통보하면 이혼이 가능하다(꾸란2:229-230). 이런 것들은 이슬람권에서는 모든 무슬림들의 일반상식이다. 이슬람에서는 남자가 여인의 몸을 사용한다는 계약서와 함께 몸값(Mehr)을 지불해야 결혼이 성립된다. 남자가 아내를 바꾸기 원하면 지불했던 몸값을 빼앗지만 않으면 원할 때는 언제든지 이혼이 가능하다.(꾸란4:20)

이런 내용의 가르침을 어려서부터 정상이라고

배워왔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아진다는 것은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여성상위 시대에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딸들이 무슬림들과 결혼하는 것은 자유와 인권을 포기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주의 시켜야 할 것이다.

### 실패한 다문화 정책

유럽 선진국의 정상들은 문화, 종교, 인종, 언어, 국적, 피부색 ... 등이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하지 말고 서로 존중하면서 평화롭게 공존하자는 다문화 정책이 무슬림들 때문에 철저히 실패했다고 이미 선언했다. 이들은 오일머니와 57개 이슬람국가가가 가입되어 있는 OIC(이슬람협력기구)의 정치력을 통해서 혹은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무슬림 인구의 힘으로 샤리아(이슬람율법)로 세상을 다스리기 원한다. 이들이 목표를 달성할 때까지 입을 다물고 있으면 우리는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누릴 수 없으

며 가정과 교회를 지킬 수 없고 국가안보를 지킬 수 없으며 후손들이 평화롭게 살 수 있는 미래를 물려줄 수 없고 이미 속고 있는 무슬림들을 돌아오게 할 수 없을 것이다. 만일 우리 주변에 무슬림들이 있다면 그들이 속고 있음을 알려주고 하루 속히 돌이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자유와 인권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서 도와주어야 할 것이다.



### 정부의 할랄 장려 정책 무엇이 문제인가?

최근에 할랄 인증 붐이 일고 있다. 할랄 인증이란 무슬림들에게 사용(식용)을 허용한다는 인증서이며 이는 정부에서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 사원이나 사설 이슬람 단체에서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발급한다. 그러나 언론을 통해 식품은 물론 화장품이나 의약품에 이르기까지 할랄 인증을 받는 것으로 일확천금을 벌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부추기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속고 있다. 누구나 새로운 일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한 쪽의 일방적 견해만 들을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 반대 의견도 들어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할랄인증서 발급에 소요된 비

용을 한 건당 2천만 원까지 지원하면서 이를 반대하는 이들을 향해서는 “국민들이 돈 벌겠다는 일에 정부가 도와주는 것이 무슨 잘못이냐”고 불편해 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다는 것인가?

### 할랄과 하람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로 인간의 삶을 통제하는 수단이다.

이슬람의 궁극적 목적은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로 다스리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 그것은 소위 온건한 무슬림들이나 또는 극단적 무슬림이나 동일한 목적을 지향하고 있다. 일단 음식을 미끼로 이슬람 율법의 노예를 만들어 놓고 계속해서 의복, 약품, 화장품, 세수하는 법, 목욕하는 법, 결혼 규정, 성생활, 금융... 이런 부분을 하나씩 점령해 나가면 결국 이슬람 율법으로 통치하게 되는 것이다. 할랄 인증서를 받으면 생산라인에 할랄 감시원이 배치되고 이들은 식품의 생산과정에서 이슬람 율법이 잘 지켜지는가를 확인해서 보고한다. 만일 부정적인 보고서가 들어가면 당장 할랄 취소 공문이 날아온다. 그럴 경우 회사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직원들을 모아 놓고 이슬람 율법에 대해서 교육할 뿐 아니라 그것을 지키라고 강요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무슬림들도 그 지긋지긋한 이슬람 율법(샤리아)의 울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살고 싶어 한다. 그런데 돈 몇 푼 더 벌자고 스스로 이슬람 율법의 종이 되는 것은 결코 지혜로운 일이 아니다.

### 할랄 인증서 발급은 꾸란에서 금하는 일이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이슬람이 발생한 것은 주후 622년이며 거의 1400년 동안 누구도 할랄 인증서를 발급한 일이 없었는데 이것이 마치 이슬람 율법

에서 장려하는 일로 착각하게 만들고 있다는 점이  
다. 할랄인증서 발급이 만일 이슬람 율법에서 권하  
는 것이라면 1,400년 전에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이  
미 시작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사우디아라비아에  
서는 지금도 할랄인증서 발급에 소극적이다. 왜냐  
하면 이는 꾸란에서 금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너희 혀들로 거짓하여 이것이 허락된 것(할랄)이  
요 이것이 금지된 것(하람)이라 말하지 말라. 이는



알라에 대해 거짓이거늘 실로 알라에 대하여 거짓  
하는 자는 변성하지 못하니라.(꾸란16:116)

돈 몇 푼 벌자고 이슬람의 경전에서 금하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정상적인 무슬림이 아니라 종교를  
빙자한 사기꾼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평범  
한 무슬림들은 전혀 신경 쓰지 않고 먹고 싶은 것  
을 먹지만 극단적 원리주의자들은 할랄음식만 고  
집하기도 한다.

**모든 무슬림들은 할랄음식만 먹지 않는다.**

필자는 이슬람 율법인 샤리아로 통치하는 이란  
에서 20년간 살면서 시장 어느 곳에 가도 할랄을  
언급하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 그런데 이슬람 인구

가 1%도 채 안 되는 대한민국에서 소위 무슬림 학  
자라는 사람들이 매스컴을 통해서 할랄 바람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2017년3월1일자 이코노미 인  
사이트는 세계 인구의 23%를 차지하는 이슬람 인  
구가 급속히 증가하기 때문에 2019년에는 할랄시  
장 규모가 3조7천억 달러가 될 것이며 그 규모는  
급속히 증가할 것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근거 없는 허구일 뿐이다. 왜냐하면 모  
든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만 먹는 것은 아니기 때  
문이다. 전체 인구의 99%가 무슬림인 이란에서도  
아르메니안 기독교인들이 운영하는 식당에 가보  
면 “이 업소는 비무슬림이 운영하고 있습니다”라  
는 간판을 걸어 해당 식당에서 파는 음식은 할랄이  
아니라는 것을 알린다. 그런데도 음식이 맛있다고  
소문이 나면 무슬림들이 줄을 지어 들어가서 먹는  
다. 그런데도 아무도 왜 할랄 음식이 아닌 것을 먹  
느냐고 단속하거나 묻는 사람이 없다. 이슬람권  
에서 술은 율법으로 금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  
96%가 무슬림인 이라크에서 한국 맥주가 순하고  
맛이 있기 때문에 현지인들이 많이 찾고 있어 매상  
이 급증하고 있다(세계일보 2015.1.19.)는 보도는  
무슬림들이 할랄 음식만 먹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다.

**할랄 인증 받은 식품은 위생적이라는 말은 거  
짓이다.**

할랄 도축장은 위생적일 수가 없다. 왜냐하면  
다비하(Dhabiha)방식으로 도축해야만 할랄 인증  
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다비하 방식은 첫째 무슬림  
이 도축해야 하고, 둘째 짐승이 죽을 때 사우디아  
라비아의 메카 방향을 보면서 죽어야 하고 셋째 목  
의 식도와 기도의 혈관을 자를 때 “비스밀라(알라

의 이름으로)”라고 외치며 잘라야 하고 넷째 짐승의 피를 빼야 하며 다섯째 이미 죽어 있는 짐승은 먹을 수 없으며 여섯째 돼지고기나 술을 금하는 것이 기본 골격이다.

일반적인 도축에는 전기 충격방법을 쓴다. 고압 전기로 머리에 충격을 주면 0.3초 내에 기절하고 5초 내에 죽기 때문에 짐승이 고통을 느낄 새도 없이 도살된다. 이 방법은 이미 죽은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는 규정과 피를 빼고 먹으라는 규정에 할랄식 도축에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할랄 도축장에 가보면 목을 반쯤 잘린 소가 거꾸로 매달려 버둥거리며 심장이 뛸 때마다 잘린 목에서 피가 울컥울컥 쏟아져 나오면서 사망으로 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피가 사망으로 튀는데 위생적일 수가 없다. 또한 극도의 고통과 스트레스와 분노를 느끼며 죽어가는 동안 소의 몸에서 독성이 생성된다. 이런 고기를 계속 먹으면 질병이 발생하고 수명이 단축되는 중요한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1인당 국민소득이 우리나라의 3배 이상 되는 카타르의 평균수명은 훨씬 짧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더구나 이슬람의 율법에 의하면 “꾸란에서 금한 것은 하람(금지된 것)이며 꾸란에서 허용한 것은 할랄(허용된 것)이니라. 꾸란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은 할랄(허용된 것)이니라.(Sunan Abi Dawud 3800, English Translation Hadith 3791)라는 하디스의 기록 때문에 성장호르몬이나 유전자 변형을 시켜도 꾸란에 이를 금하고 있는 구절이 없으므로 할랄로 인정받는데 문제가 없으며 그것이 인체에 해를 끼친다는 것을 알면서도 법적으로 할랄이기 때문에 죄의식도 느끼지 않는 것이다. 그러므로 공영방송에서 이를 웰빙식품으로 홍보해 주는 것은 몰라서 그랬다고 변명하기에는 피해가 너무 큰 범

죄행위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 할랄규정에 의하면 할랄제품과 하람제품이 접촉하면 할랄이 취소된다.

성경에도 거룩한 고기가 부정한 물체에 닿으면 부정하게 된다고 하였다. (학2:13) 이슬람의 할랄 규정도 마찬가지로 할랄 고기를 돼지고기 요리하던 도마에서 썰거나 개고기를 자르던 칼로 자르면 할랄은 취소된다. 그래서 도축과정에서 운반, 진열, 판매, 요리과정 등의 모든 과정에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하지만 모든 과정을 무사히 통과했는지라도 무슬림 아닌 사람이 요리했거나 부정한 것과 접촉되면 할랄은 취소된다. 할랄 규정은 음식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고 했다. 인간도 무슬림이 아니면 하람이다. 예를 들면 무슬림 여자는 기독교인이나 불교도 혹은 무신론자인 남자와 결혼할 수 없는데 이유는 하람(금지)이기 때문이다. 너 무 사랑해서 꼭 결혼하고 싶다면 남자가 개종해서 무슬림이 되면 할랄(허용)된다. 비무슬림은 인간 자체가 하람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슬람 율법을 꼼꼼히 적용한다면 비무슬림이 할랄 식자재를 생산, 운반 판매 요리과정에서 손을 댔다면 그것은 이미 할랄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무슬림들에게 돈 받고 할랄 음식을 만들 수 있도록 인증서를 발급해 준다는 사실은 이들이 이슬람 율법을 지키는 것보다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하는 자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다.

### 할랄은 통일된 기준도 없고 가변적이다.

전 세계 할랄 인증 기관은 약 300개 정도 된다. 그런데 각 기관마다 기준이 다르다. 알코올은 하람이지만 음식에 섞인 것은 취하지만 앓을 정도

면 할랄로 인정하는 곳도 있고 0.1%까지 허용하는 곳도 있고 허용을 금하는 곳도 있다. 게다가 무프티(Mufti)급의 성직자가 파트와(Fatwa:이슬람 칙령)선언을 통해서 수시로 바꿀 수도 있다. 자기 아내 외의 여자와의 성관계를 하는 것은 하람(금지)이지만 2~3시간짜리 시한부 결혼 계약서를 쓰고 이슬람 성직자가 서명하면 할랄(허용)된다. 어제까지는 하람이었다가 오늘부터는 할랄 될 수도 있다. 무슬림학자들에게는 할랄과 하람을 판단할 수 있는 권한처럼 편리한 것이 없다. 이런 사람들에게는 배교자를 죽이는 것도 할랄이고 비무슬림들을 차별하는 것도 할랄이다. 어제 할랄이었던 것을 오늘 하람으로 만들 수도 있고 나에게서는 할랄이고 너에게는 하람이라고 해도 감히 이슬람 성직자에게 그런 모순이 어디 있느냐고 따지고 달려들 만한 용기를 가진 사람은 없다.

### 맺는 말

이런 말도 안 되는 할랄 규정을 잘 지킬테니 할랄 인증서에 도장만 찍어달라고 돈 들고 쫓아다니는 행위는 비록 매상을 조금 올리는 효과가 있을지는 몰라도 자신과 회사 근로자들을 이슬람 율법의 노예로 전락시키는 일이다. 이런 할랄 인증서를 발급받는데 소용된 비용을 국민의 세금으로 보상해 주는 것은 특정 종교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국민의 세금을 허비하는 위헌 행위다. 무슬림들을 진정 사랑한다면 그들을 그 잔인한 샤리아(이슬람 율법)에서 해방시켜 주어야 한다. 샤리아는 비무슬림들과 친하게 지내는 것을 하람이라고 가르친다.(꾸란4:144, 꾸란5:51) 비무슬림들과 싸우는 것은 할랄(허용)을 넘어 와집(의무)이다.(꾸란2:216) “비무슬림의 피를 흘리는 것은 할랄(safk

dimaa al kuffar halal)”이라는 말은 무슬림들의 상식이다. 할랄 인증을 받아 돈을 벌겠다는 것을 말리지는 않았지만 그 노력으로 제품의 품질을 높인다면 소수의 원리주의자들을 제외한 대부분 무슬림들은 기꺼이 이용할 것이다. 배타적이고 폭력적인 무슬림들에게 자금을 지원하면서 이슬람 율법의 영향력을 키워주며 스스로 이슬람 율법의 노예가 되겠다는 행위는 결국 우리의 미풍양속을 해치는 자해행위가 될 것이기에 막아야 할 것이다. 

